

2006년 근로자 평균연봉 2780만원

사무직 3726만원에 생산직 2055만원 ... 대졸 가구주는 3831만원 달해

2006년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7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근로자 연봉이 생산직 근로자의 2배에 달했고, 대학교 졸업 근로자의 연봉은 초등학교 졸업 근로자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전국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본인 월평균 근로소득은 231만7000원으로 2005년 219만5000원에 비해 5.53% 증가했다.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5년 2635만원에서 2006년 278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자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2003년 202만6000원에서 2004년 213만1000원, 2005년 219만5000원, 2006년 231만7000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사무직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6년 월평균 310만5000원으로 2005년 296만2000원보다 4.81% 늘어났고, 생산직은 2005년 162만3000원에서 2006년 171만3000원으로 5.54% 증가했다.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봉은 2005년 각각 1948만원과 3555만원에서 2006년 2055만원과 3726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연봉 격차는 2005년 1607만원에서 2006년 1670만원으로 벌어졌다.

또 대학을 졸업한 가구주의 2006년 근로소득이 월평균 319만3000원으로 2005년 300만1000원 비해 6.37% 늘어나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은 2005년 207만2000원에서 2006년 215만3원으로 3.86% 늘었고 중졸은 140만5000원에서 141만1000원으로 0.4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5년 111만8000원에서 2006년 111만5000원으로 오히려 3.34% 감소했다.

연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대졸 3831만원, 고졸 2583만원, 중졸 1693만원, 초졸 133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졸과 대졸 근로자의 연봉격차는 2005년 2260만원에서 2006년 2494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2/07>